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o.kr 080)320-7700

KIA 타이거즈의 2군 전용 연습구장인 함평 챌린저스필드에서 야수진이 기술 훈련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내야수 이인행(왼쪽부터)·박세웅·강한울·박진두가 밝은 표정으로 펑고를 받고 있다.

실내연습장에서 고무공을 던지면서 스트레칭을 하던 투수들이 공을 올려보고 있다.

외야수 김주찬이 정회열 2군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실내에서 배팅훈련을 하고 있다.

1군 엔트리 5명 확대…KIA 함평구장 뜨겁다

9월 1일 겨냥 또 다른 주전경쟁

김주찬·김주형·최희섭·한기주·차일목

챌린저스필드서 연일 몸만들기 ‘구슬땀’

챌린저스필드에서 9월1일을 겨냥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2015 프로야구 대장정의 끝이 보인다. 치열한 5위 싸움 속 각 팀들이 30여 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퓨처스리그는 종료를 앞두고 있다. KIA 타이거즈도 앞으로 4번의 홈경기(26일 상무, 27·28일 롯데, 9월1일 삼성)를 더 치르면 퓨처스리그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KIA의 2군 전용훈련장인 함평 챌린저스필드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선수들이 9월1일을 기다리고 있다. 9월1일부터 1군 엔트리가 확대되면서 5명의 선수가 자리를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 자리를 놓고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리빌딩 시즌’으로 출발한 올 시즌 1군 경기에 출장한 선수는 무려 56명이나 된다. ‘기회’라는 동기부여가 선수들을 움직이면서 올 시즌 2군 전력도 많이 탄탄해졌다. 변화의 바람 속에 콜업을 할 수 있는 후보군이 어느해보다 넓다.

콜업 1순위 후보는 일본에서 재활치료를 끝내고 돌아온 외야수 김주찬이다.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일본에서 오른쪽 햄스트링 치료를 받았던 김주찬은 25일 복귀를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챌린저스필드에 모습을 드러낸 김주찬은 실내에서 배팅 훈련을 소화하는 등 9월을 준비하고 있다.

허벅지 근육 파열로 자취를 감췄던 내야수 김주형도 지난 18일부터 2군 경기에 출전하면서 1군 어필을 하고 있다.

사구에 운 최희섭은 페이스를 늦춘 상태다. 지난 5월 한화 배영수의 사구를 피하다가 허리 통증이 심해진 최희섭은 7월21일 2군 복귀전에서 홈런까지 쏘아올렸지만, 이 경기에서 다시 무릎에 공을 맞는 등 ‘사구 불운’에 울었다. 지난 20일 kt와의 2군 경기까지 소화한 최희섭은 허리 상태가 좋지 않아 조심스럽게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경험이 풍부한 차일목·이성우 두 베테랑 포수도 9월의 유력 후보군이다. 퓨처스리그 평균자책점 전체 3위에 올라 있는 마당쇠 신창호도 있다. 전반기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대졸 신인 문경찬, 사이드암 박준표, 관록의 김태영, 좌완 임기준, 돌아온 한기주 등 마운드의 선택 폭도 넓다. 이를 악문 내야수 강한울과 내야의 멀티플레이어 박기남, 외야수 오준혁·노수광에 이어 한화에서 이적한 내야수 전현태 등도 대기하고 있다. 이미 이름이 알려진 이들 외에 새 바람을 불어 넣을 ‘깜짝 선택’의 가능성도 있다.

치열한 엔트리 싸움이 전개되고 있지만 경쟁에서 한발 물러나 숨을 고르고 있는 이들도 있다.

7월9일 넥센과의 경기 도중 좌측 손목 미세 골절로 그라운드를 떠난 최용규는 갈비뼈 미세 골절까지 겹치면서 재활조에서 9월을 맞게 됐다. 팔꿈치 수술 이후 재활을 반복했던 투수 유망주 차명진도 9월 중순 군복무를 위해 챌린저스필드를 떠날 예정이다.

/함평=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세영·김효주 신인왕 향한 샷 대결

김효주

LPGA 요코하마 클래식 출전

박인비·리디아 고 1위 경쟁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2015시즌 신인 2강 구도를 형성한 김세영(22·미래에셋)과 김효주(20·롯데)가 자존심 대결에 들어간다.

김세영과 김효주는 27일(현지시각) 미국 앨라배마주 프래트빌의 로버트 트렌트 존스 골프트레일(파72)에서 열리는 요코하마 타이어 LPGA 클래식(총상금 130만 달러)에 출전한다.

둘은 25일 기준 LPGA 신인왕 부문에서 1, 2위에 올라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김세영이 1051점으로 1위, 김효주가 1004점으로 2위다. 3위인 호주교포 이민지(19)는 813점으로 뒤쫓고 있다.

L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하면 신인왕 포인트 150점을 가져간다. 2위, 3위는 각각 80점, 75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번 대회 김세영과 김효주의 성적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다.

세계랭킹 1위인 박인비(27·KB금융그룹)와 2위 리디아 고(18)가 이번 대회에 나오지 않는 것은 신인들의 우승 도전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김세영은 퓨어실크-바하마 클래식과 롯데 챔피언십에서 시즌 2승을 거뒀고, 김효주는 JTBC 파운더스컵에서 시즌 첫 승을 올렸다.

승수는 김세영이 더 많지만 상위 10위 안으로 대회를 마치는 ‘톱10 피니시율’은 김효주가 47%(17개 대회 중 8개)로 공동 5위, 김세영은 42%(19개 대회 중 8개)로 공동 7위다.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허미정(26)은 2연패를 노린다. 허미정은 지난해 이 대회 우승으로 통산 2승째를 거둔 이후 우승컵을 추가하지 못했다.

세계랭킹 3위 스테이시 루이스(미국)도 박인비와 리디아 고의 공백을 노려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루이스는 직전 대회인 캐나다 퍼시픽 여자 오픈에서 리디아 고에게 연장 승부 끝에 패해 우승을 눈앞에서 놓쳤다. /연합뉴스

김세영

슈틸리케號 첫 승선 석현준

포르투갈 리그 멀티골 자축

5년 만에 태극마크를 따낸 석현준(비토리아FC)이 포르투갈 프로축구 정규리그에서 멀티골을 터트리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석현준은 25일(한국시간) 포르투갈 코임브라의 ‘이스타디우 시다드 드 코임브라’에서 열린 아카데미카 드 코임브라와의 2015-2016 포르투갈 프리메이라리가 2라운드에서 혼자서 2골을 책임지며 비토리아 FC의 4-0 대승을 이끌었다.

지난 17일 정규리그 개막전에서 보아비스타와 2-2로 팀이 비길 때 팀의 두 번째 골에 어시스트를 기록한 석현준은 이날 득점으로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2골1도움)를 기록하며 물오른 결정력을 과시했다.

아카데미카 드 코임브라를 상대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석현준은 전반 17분 만에 중거리포로 결승골을 몰아치더니 후반 10분 페널티지역에서 추가골까지 터트리며 팀의 승리를 예고했다.

석현준의 멀티골로 앞서간 비토리아FC는 후반에 두 골을 추가하면서 4-0 대승의 기쁨을 맛봤다. /연합뉴스

‘미리보는 U-17 월드컵’ 수원컵 경기일정 확정

한국, 내달 2일 나이지리아와 첫 대결

2015 수원 컨티넨탈컵 U-17(17세 이하) 국제 청소년국가대표 축구대회(이하 수원컵·2~6일)에 출전하는 한국 대표팀의 경기 일정이 확정됐다.

대한축구협회는 U-17 대표팀이 다음달 2일 수원컵에서 나이지리아와 대결한 뒤 4일 크로아티아, 6일 브라질과 차례로 맞붙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수원컵은 지난 6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인해 9월로 연기됐다.

10월17일 칠레에서 개최되는 2015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한국, 브라질, 크로아티아, 나이지리아 U-17 대표팀이 참가한다.

특히 브라질은 U-17 월드컵에서 한국과 함께 B조에 편성됐다. 나이지리아와 크로아티아는 개최국 칠레와 함께 A조다.

U-17 대표팀은 ‘미리보는 U-17 월드컵’으로 평가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실전 감각을 익히고, 전력을 가다듬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FC바르셀로나 유소년팀인 후베닐A에서 성인팀인 B팀으로 승격한 이승우와 장결희(후베닐A) 등을 소집한 U-17 대표팀은 24일부터 파주NFC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2015 수원 컨티넨탈컵 한국대표팀 경기 일정

▲9월2일 한국-나이지리아(20시·수원월드컵경기장) ▲9월4일 한국-크로아티아(20시·수원월드컵경기장) ▲9월6일 한국-브라질(17시30분·수원월드컵경기장)

/연합뉴스